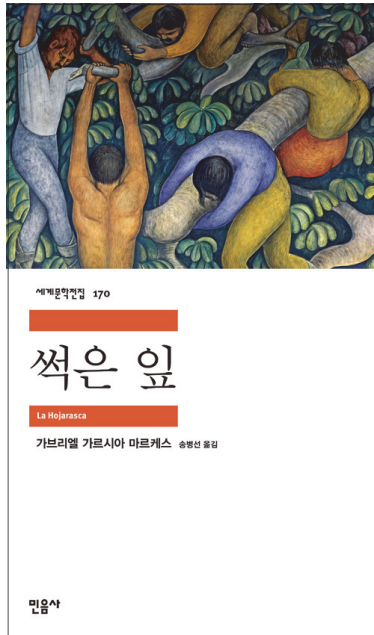


Books

신간소개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썩은 잎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지은이)

원제: La hojarasca(1955년)

출판사: 민음사

출판일: 2016-12-02

ISBN(13): 9788937433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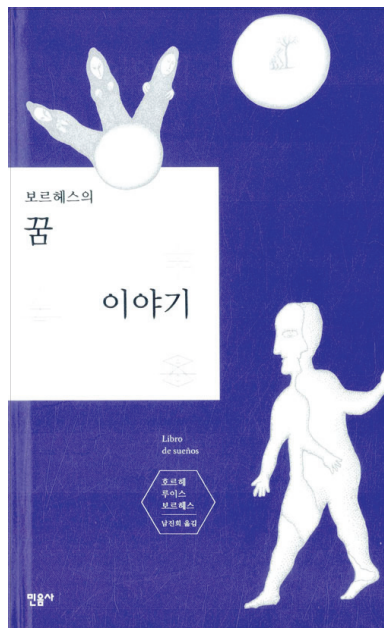
200쪽 | 255*133 mm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초기 작품. 수십 년 전에 중역되어 소개된 작품이 드디어 원전에서 번역되었다.

아직은 가르시아 마르케스 특유의 구성진 목소리가 맛깔스럽게 울리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소설에 이미 거장의 문학 세계가 충분히 구현되어 있다. 가상의 마을

마콘도, 거대한 시스템이 초대할 부정과 부패, 거부할 수 없이 치명적인 사랑과 죽음, 기나긴 세월 동안의 고독, 서로 다른 도덕과 경험이 부딪치며 만들어 내는 격렬한 순간, 이 모든 것이 시공간을 사용한 퍼즐 맞추기처럼 환상적이고도 생경한 풍경으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퇴역한 대령, 대령의 딸 이사벨, 이사벨의 어린 아들, 그리고 지난밤 유명을 달리한 어느 의사의 시체가 있다. 스산한 가을, 거리의 바닥에는 떨어진 잎이 쌓여 썩어 가고 의사는 마을 묘지에 매장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해 영원한 안식을 보류 당했다. 성당의 종소리, 과거에서 풍겨 나오는 향냄새, 뽀뽀한 상복의 옷깃, 입속에서만 속삭이는 비밀. 조출하고 괴상한 이 장례 자리에서 대령의 가족은 저마다 지난날을 회상하고 시간과 공간이 중첩으로 확장하며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의 타래가 풀려 나와 눈앞에 흘러간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보르헤스의 꿈 이야기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지은이)

원제: Libro de sueños

출판사: 민음사

출판일: 2016-06-13

ISBN(13): 9788937433078

307쪽 | 218*133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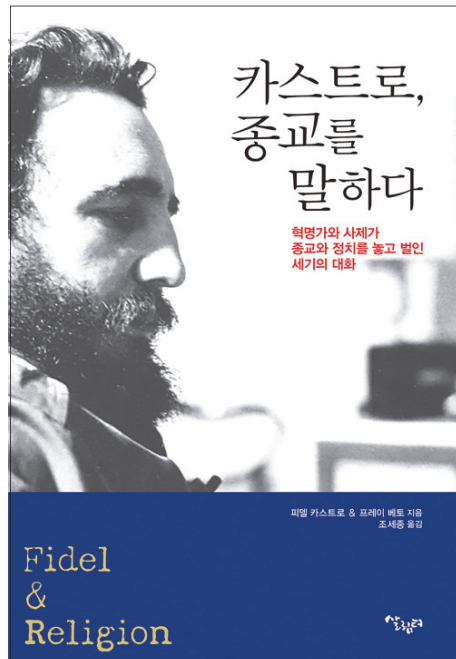
보르헤스는 생전에 세계의 여러 책에서 발췌한 글로 책을 펴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번에 번역된 『꿈 이야기』이다.

보르헤스는 도서관에 필적할 만큼 방대한 지식을 머리에 담고 하나의 우주에 비견할 만큼 분방한 상상을 가슴에 품은 ‘우리 시대의 사서’이다. 이런 보르헤스가 직접 고른 동서고금의 전승과 다양한 문헌에 기록된 몽환적인 꿈의 영상이 이 책을 통하여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이 책에는 수메르 신화에서부터 창세기, 북유럽 전승, 프랑스 왕정, 아르메니아의 역사, 중국의 기서, 나아가 보르헤스 개인의 단상까지 망라하며 온 세상에 편만한 꿈들의 화첩을 그려 낸다.

이처럼 고전에서 발췌한 편린을 하나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보르헤스는 발췌 또한 하나의 완결된 작품이라고 은연중에 시사한다. 실제로 이야기의 전후 맥락을 편린 속에 슬쩍 집어넣음으로써 작품의 완결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원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한다는 관념은 우리 시대의 편견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듯하다. 보르헤스가 원전의 힘을 경시했다거나 원전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는 발췌한 글도 하나의 작품으로서 수용될 수 있고 또 수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미 텍스트로 출판된 이야기를 이렇게 작품집으로 묶는 행위는 세계의 모든 문학 전통을 전유하려는 보르헤스만의 방식이기도 하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카스트로, 종교를 말하다

피델 카스트로(지은이) | 조세종(옮긴이)

원제: Fidel & Religion: Conversations with Frei Betto on Marxism & Liberation Theology (1985년)

출판사: 살림터

출판일: 2016-12-12

ISBN(13): 9791159300271

420쪽 | 223*152mm

『카스트로, 종교를 말하다』는 브라질의 도미니코회 수사신부 프레이 베토 사제와 쿠바 혁명군 사령관 피델 카스트로의 대담집이다.

1985년 5월, 쿠바의 수도 아바나 혁명궁전에 있는 카스트로의 사무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네 번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삶과 신앙, 종교와 정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피델 카스트로는 예전에는 결코 이야기한 적이 없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인터뷰는 1985년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4일 동안 주로 밤 시간을 이용해 진행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밤을 새워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그 내용은 피델 카스트로의 신앙에 대한 이해와 혁명 과정, 혁명의 승리 이후에 종교에서 비롯된 역사적인 사건과 신앙 의식을 보여준다. 또한 종교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사상에 이르기까지 그가 생각하고 경험한 내용을 진솔하고 힘 있게 피력하고 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카스트로는 ‘7월 26일 운동’ 포스터를 베토 신부에게 선물했는데, 포스터에 카스트로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어떤 사람도 아직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 나를 신자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프레이 베토이다. 나는 이 혁명 초기 포스터를 그에게 바친다. 형제로서, 피델 카스트로.”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문명의 보고 라틴아메리카를 가다

정수일 (지은이)

출판사: 창비

출판일: 2016-10-07

ISBN(13): 9788936482787

520쪽 | 153*225mm

이 책 『문명의 보고 라틴아메리카를 가다 1·2』는 문명교류학자 정수일이 실크로드 대장정의 완결판으로 라틴아메리카를 일주하며 내놓은 그동안 학계에서 실크로드와는 무관하다고 여겨온 주요 지역에서 문명교류의 개연성을 캐내려는 한

연구자의 답사 실록 그 첫 번째 책이다. 아시아와 유럽 간 교역의 육상 루트로만 여겨져온 실크로드의 개념을 전지구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획기적이며 논쟁적인 발상을 라틴아메리카 곳곳에서 두 눈으로 확인하며, 인류문명의 다차원적 교류 통로를 구체적으로 복원해낸 역작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기행에서 저자는 콜롬버스, 마젤란, 엔히크 등 대서양 항로를 개척한 인물들의 여정을 있는 그대로 복기하고 유적, 유물에서 드러난 교류의 흔적들을 수집했다. 1차 탐방으로 저자는 라틴아메리카의 최남단 우수아이아에서 북단 멕시코와 쿠바에 이르는 주요 항구와 도시를 종횡무진 탐방하여 마젤란, 바스쿠 다 가마, 엔히크의 여정을 항로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엔히크가 대서양 항해의 첫 닻을 올린 리스본에서 출발하여 브라질로 떠나 리우데자네이루항을 거쳐 포르투갈 식민사의 대표적 항구도시 쌀바도르, 마젤란이 발견한 몬테비데오, 각종 특산물을 유라시아에 수출했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이 포함되어있다. 2차 탐방으로는 콜럼버스의 대서양 횡단항해 현장을 탐방하기 위해 중미 카리브해의 주요 도시와 국가를 다녀왔다. 저자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신·구대륙 간 교류의 흔적뿐 아니라 서구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단절되어버린 역사의 빈 공간과 이후 강대국들의 개입 및 부패로 얼룩진 근현대사의 그늘도 있다.